

은평구 파발제의 콘텐츠 다방면화 및 외부인 유입을 위한 홍보 방안

이준상 · 서연우 · 하윤후

하나고등학교

Diversifying Content and Promoting External Engagement for the Pabalje Festival in Eunpyeong-gu

Jun-Sang Lee · Yeon-Woo Seo · Yoon-Hoo Ha

Hana Academy Seou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strategies to diversify the content of the Pabalje Festival in Eunpyeong-gu and enhance its appeal to external visitors. Despite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s a regional festival celebrating the Joseon Dynasty's Pabal communication system, the festival has struggled with limited public awareness, insufficient promotion, and unengaging content.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study draws on successful cases from other regional festivals and suggests innovative solutions, including interactive media art, digital engagement via the metaverse, and tailored programs for diverse audiences. Surveys and interviews with local stakeholders further support proposals for revitalizing the festival's cultural and economic value. These findings aim to establish the Pabalje Festival as a sustainable cultural landmark while fostering stronger connections between the local community and its historical heritage.

Key words: Pabalje Festival, Cultural Revitalization, Eunpyeong-gu, Regional Marketing

1. 서론

은평구는 서울시 서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산을 끼고 있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약 15㎢씩 차지하고 있다. 바로 옆에 경기도 고양시를 두고 있으며 은평뉴타운이 생기면서 인구 수도 늘어났다. 하지만 자족기능보다는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은평구 자체의 특성이나 인지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 워낙 서북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 교통과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특성이 있다.

하나고가 위치해 있는 은평구의 여러 특성을 살려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과 학교를 연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산을 통해 하나고의 장점을 살려 은평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사례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은평구의 가장 유명한 특징을 “파발”로 잡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은평구의 파발제를 발전시켜 은평구의 특성을 드러내고 최근 생성되고 있는 핫플레이스(hot place)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한양의 서쪽 파발지역의 첫 시작점인 구파발은 지금 현재 그 역사적 유적이거나 지리적 특색이 남아있지 않고 구파발이라는 지명만 남아 아쉬움이 크다. 특히 구파발은 한양에서 북쪽으로 가는 첫 역참지로 역사적,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서발, 북발, 남발의 3 대로로 나누어져 있는 파발 중 유일하게 기발이 존재했던 곳이기도 하다.

파발제는 1996 년부터 시작되어 서발의 첫 역참지인 구파발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우리나라 파발 제도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홍보하는 은평구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이다. 파발과 통일에 대한 바람을 엮어 현재 전문공연단체의 공연과 주민축하공연, 파발 출정식과 파발제 재현극이 진행되고 있다. 역참제 모형, 기발, 보발, 파발마 및 길놀이 등을 통해 퍼레이드를 진행하여 파발문을 전달하는 행사로 구성된다.

현재 파발제는 그 역사적 상징성에 비해 홍보나 실행력에 있어 아쉬운 문제들이 존재한다. 은평구 이외의 지역에서 이 축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한계로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은평구의 축제인 파발제 축제를 널리 확산시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발제의 문화 콘텐츠를 재검토하고 파발제가 가지는 의미를 살려 역사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외부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키고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하나고가 위치한 은평구의 지역적 특색 중 ‘파발제’를 중심으로 하여 파발제의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부각시키고, 지역 축제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은평구의 문화적 강점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축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와 홍보 방안을 제안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파발제의 역사적 배경

파발(擺撥)은 공문을 급하게 보내기 위하여 설치된 조선시대의 역참(驛站) 제도이다. 파발에 대한 설명에 앞서 봉수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봉수가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의 일이었다. 중국에서도 전한시대부터 봉수제도가 확립되었고,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봉수를 이용한 증거를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막상 정식으로 봉수제도에 대한 기록은 고려 초인 1149(의종 3)년 봉수의 제도를 정하고 봉수군의 생활대책을 세운 경우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¹

¹ 박성래 (1990), 한국과학기술의 맥(47)-봉수와 파발에서 첨단정보화시대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

‘공문을 보낸다’라는 목적에서 넓은 의미에선 우역(郵驛) 제도도 확인 가능하다. 郵는 공문 혹은 편지 등을 사람이 직접 전해주는 경우를 말하고, 驛은 통신이 말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우역(郵驛)은 또다른 교통, 통신 시설로 공문서 전달, 물건의 운송, 그리고 관리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우역 제도가 교통과 통신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였다면 파발은 이 기능이 분화되어 통신업무를 위주로 진행되었다. 1579(선조 30)년 시작된 파발제도는 보발과 기발로 구성되어 있다. 보발은 사람이 직접 걸어서 이동하였다. 원칙적으로 보발은 30 리에 하나씩 참(站)이 마련되어 있었고, 기발은 말을 활용한 것이었으며 25 리마다 참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공문을 전달하였다. 또한 역로에 따라 서발, 북발, 남발로 구성하였다. 38 참이 의주와 서울 사이에 있었으며 가장 빈번한 통신이 이루어졌다. 이는 중국과의 교류 때문이었다. 중국과의 연락은 군사 및 외교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기발을 활용하였고, 이것이 서발이다. 서울에서 남쪽 초량까지는 34 참이 있었다. 그 외 북발과 남발은 보발이었다. 기발이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기발은 하루 300 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보발의 경우는 150 리 정도의 속력을 낼 수 있었다. 즉 절반 정도이다. 보발의 경우 아주 급한 경우를 3 급이라고 하여 하루 6 개 역을 걸어 가게 되어 있었으며, 2 급의 경우에는 5 개역, 1 급의 경우에는 4 개역을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2 월부터 7 월의 경우였다. 8 월부터 1 월까지는 각각 1 개역씩 줄여서 가는 게 가능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의주까지는 1050 리, 부산까지는 920 리였으니 말을 타고 3 일 정도, 걸어서는 7 일 이상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²

파발제는 실행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일어났다. 1 번째는 전달이 지체될 수 있다는 문제였다. 특히 서발과 같은 경우, 중국과의 사신왕래에 따른 신속한 전달이 지체되었을 때에는 외교상의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2 번째, 관권을 이용한 폐단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선전관이나 금군 등이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힘을 행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문서가 누설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공문서 중에서는 기밀을 요하는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문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들은 파발제 운영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주었다. 위와 같은 폐단들로 여러 차례 시정이 요구되었다. 그러다 고종 32 년(1895)에 현대식 전화통신 시설이 국내에도 설치되게 되면서 파발제는 폐지되게 된다.

파발은 기존의 역명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것으로 중요한 역 위에 파발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파발의 남아있는 흔적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파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3 호선 구파발역은 파발에서 중요한 지점이었다. 구파발은 원래 양주 신현면에 있던 검암참(黔巖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옛 파발’ 내지 ‘옛 파발이 있던 곳’을 뜻하는

총연합회, 23-4, 35p.

² 박성래 (1990), 한국과학기술의 맥(47)-봉수와 파발에서 첨단정보화시대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3-4, 36p.

말이다. 검 암참을 속칭 ‘구과발’이라고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³ 중국으로 가는 서발의 첫 역참이었던 곳이었다. 명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역참마을이 보존되어 있거나 장소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은평뉴타운 개발 전에만 해도 법정동 구과발동도 존재하긴 하였지만 개발 이후 소멸되었다. 하지만 은평구에서는 이를 기억하기 위해 작년 2023년까지 과발제를 지역축제로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 19 이후부터 과발제의 크기가 축소되더니 은평누리축제와 같이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은평누리축제 속에 포함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심승구는 ‘구과발 과발제의 현황과 과제’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다. ‘급보를 신속히 전하는 과발은 국가 안위와 백성의 삶을 지키는 네트워크이자 생명선이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처음 도입하여 19세기 말까지 약 300여년간 지속된 구과발을 지역의 정체성을 넘어 한국 전근대 정보통신의 역사와 문화를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⁴ 지역연계 과발제를 주제로 한 구성원들 또한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과발제를 홍보하고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 지역연계 주제로 선정하고, 답사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하반기가 되도록 과발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10월 초가 되어서야 과발제를 제외하고 은평누리축제만을 실시한다는 은평구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었다. 2024년 올해부터 과발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2.2. 공공선택이론과 과발제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전통적인 공공서비스의 경우 관료화 된 정부가 독점적으로 생산과 공급을 한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소비자인 개인은 선택권을 가질 수 없어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는 결국 공공서비스 분야의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여 정부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입되었다.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의 경쟁 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사회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이론이다. 또한, 비시장적 의사결정에서 개인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공공선택이론은 톨록, 뷰캐넌, 니스카넨 등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행정학에서는 오스트롬(Vincent Ostrom)에 의해 소개되었다.

과발제의 문제는 공공선택이론에서 지적하는 정부실패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과발제의 문제를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1) 공무원 동원의 비효율성

³ 심승구 (2022). 구과발 과발제의 현황과 과제 - 축제의 정체성 탐색,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8, 2p.

⁴ 심승구 (2022). 구과발 과발제의 현황과 과제 - 축제의 정체성 탐색,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8, 2p.

공공선택이론은 공급자인 정부기관 사이의 경쟁을 통해 최선의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비자인 개인으로 하여금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야 비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파발제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참여 인원을 늘린 사례가 문제되었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기관이 관료화 된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파발제 관련 공공서비스를 독점한 결과 발생한 문제이다. 공급자 사이의 경쟁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참여 규모를 형식상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인 개인은 정부기관이 독점하여 제공한 부실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선택권을 제한받게 되었다. 이처럼, 소비자인 개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해 만족도 여부에 관한 의사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행정의 반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결국 위 사례를 통해 공공선택이론의 행정학적 의의에서 언급된 행정서비스 생산과 공급에 있어 시장논리를 적용한 행정개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충분하지 않은 준비 및 홍보기간 문제

파발제에서는 준비 및 홍보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참여율 저조, 흥행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준비 및 홍보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공급자인 정부기관이 부실하게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 역시 정부기관 사이에 경쟁이 있었다면 발생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소비자인 개인은 부실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선택권을 제한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한 고비용·저효율의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따라서 위 사례 역시 공공선택이론에서 지적하는 정부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축제 준비의 비효율적 업무 분장

공공선택이론은 경쟁적 정부를 지향하며 관할권의 중첩과 다조직적 배열을 통해 서비스 공급 주체 간 경쟁을 유발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최선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소비자인 개인의 선택권도 보다 넓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 구도 하에서 공급자는 최적의 인사 배치와 업무 분장을 하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쟁자보다 우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발제의 경우 운영을 맡고 있는 은평문화재단의 업무 분장 혼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생산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조직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위 사례 역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 부재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참고로, 이와 유사하게 한성백제 문화제와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주최한 송파구의 경우에도 과거 2~3 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처럼, 파발제에서 나타난 축제 준비의 비효율적 업무 분장 문제를 보면, 관할구역의 중첩과 다조직적 배열을 통해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지역경제 활성화 실패

공공선택이론에서는 공공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파발제의 경우 지역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외부 계약업체를 주로 활용한 것이 문제되었다. 만일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파발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도와 참여율 역시 높아졌을 것이다. 또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파발제 흥행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강진구의 경우 지역 내 농가에서 1 주일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인 ‘푸소(FUSO)’를 통해 2015 년부터 현재까지 5 만 7,000 명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농가에 52 억 8,000 만 원의 소득을 안겨주었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이처럼, 독창적인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파발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의 참여 동기를 약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역시 정부가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의 정부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콘텐츠 부족 및 다양성 결여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소비자인 개인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최적의 상황을 파레토 최적점이라고 설명한다.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인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파레토 최적점에서도 멀어지게 된다.

그런데, 파발제의 경우 콘텐츠 부족 및 다양성 결여가 문제되었다. 이 역시 독점적인 정부기관이 부실하게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한 결과이다. 콘텐츠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부족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역시 낮아지는 원인이 되었다. 즉, 서비스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소비자인 개인의 만족도도 낮아져, 파레토 최적점에서 떨어진 상황이 된 것이다.

참고로, 2024 년 5 월 밀양시가 개최한 제 66 회 ‘밀양아리랑대축제’의 경우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관람객 축제 만족도 83.1 점의 합격점을 받았다. 또한, 2019 년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시행한 2018~2019 지역축제 종합만족도에서 ‘함평나비대축제’가 1 위를 차지했는데, 다양한 축제 콘텐츠 등이 그 이유로 확인되었다. 충분한 콘텐츠와 다양성을 갖춘 축제가 파레토 최적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공공선택이론은 서비스 다양화와 고객의 선택권 보장을 강조한다. 그런데, 파발제에서 나타난 콘텐츠 부족 및 다양성 결여 사례는 위와 같은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 운영 방식의 미흡

공공선택이론은 작은 정부를 역설하는 이론이다. 또한, 공공선택이론은 행정기관의 계층제 완화와 분권화를 통해 행정의 반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파발제에서는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각종 혼란이 발생했다. 합리적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현장 대처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 사례 역시 공공선택이론에서 말하는 정부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3. 공공선택이론의 정책적 시사점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파발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행정의 반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 파발제의 준비, 진행 및 종료 과정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하거나 축제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절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쟁적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은평문화재단 내부의 업무를 명확히 분장하여 효율적, 체계적으로 파발제를 준비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과의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내 업체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율 역시 높일 수 있다.

넷째, 분권화와 계층제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축제 운영에 있어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선택이론을 적용할 경우 파발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지역 주민의 효용을 극대화하며, 정부실패를 극복하는 한편,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 방법 및 절차

파발제의 콘텐츠 다방면화 및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기존 운영방식의 문제점 및 정책 상의 한계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하였다. 문제점 도출 이후 개선안 제안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축제의 사례를 참고하고 지역 특색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방안을 고민했다. 또한 은평구의 대표적인 시장인 연서시장에 방문하여 지역 상인들에게 파발제의 경제적 효과와 운영상의 개선 방안 및 희망 사항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탐구한 파발제의 개선 방안을

잘 정리하여 은평구 홈페이지 정책 제안 서비스, ‘은평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였다.

3.2. 파발제의 문제점

2023 년 이전까지 진행된 파발제에 대해서는 크게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파발제는 은평구를 대표하는 지역전통문화 축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부족하고 외부 참석 인원 역시 적어 흥행에 실패한 적이 많았다. 20 회를 맞이한 ‘2019 파발제’에서는 참여 인원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무원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에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정례회 결산검사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참여 인원을 최대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2023 년 파발제의 경우 참여 인원의 81%가 은평 구민이고, 나머지 참여 인원의 경우 서울시 10%, 경기도 6%, 그 외 지역 2%로 나타나 전국 규모의 축제가 될 수 없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둘째, 준비 및 홍보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도 있다. 2019 년 파발제의 경우 연초에 갑자기 파발제 일정을 10 월에서 6 월로 변경하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가 특히 더 심각했다. 이는 축제 참여 인원 수 감소와 흥행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셋째, 파발제 준비를 위한 주최측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파발제 준비를 담당하는 은평문화재단의 업무분장 변경 횟수를 보면, 2017 년에는 7 회, 2018 년에는 24 회, 2019 년에는 12 회에 달했다. 특히 파발제 시작 10 일 전에도 갑자기 담당자가 변경되어 업무 연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넷째, 파발제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는 민간 계약 업체 중 은평구 관내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로 인해 지역축제의 주된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섯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이 적어 주민 참여율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유명세 있는 가수나 공연 중심으로 축제가 구성되어 지역축제의 특성을 살리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각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 확대를 비롯하여 독창성과 다양성을 갖춘 프로그램 중심으로 축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섯째, 운영 방식의 문제점도 있다. 주최측이 사전에 퍼레이드 참여 안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 주민들이 1 시간 넘게 대열이 오기를 기다린 적도 있다. 식수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퍼레이드에 참여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

2023 년 지표를 살펴보면, 축제 준비, 시행 등에 638 명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수는 총 62 개였다. 일반 참여자는 33,517 명이 고, 방문객 연령대는 60 대 이상 27%, 40~50 대 27%, 20~30 대 18%, 10 대 25%였다. 방문객 축제 만족도의 경우 만족 48%, 매우 만족 48%, 불만족 2%, 매우 불만족 2%로 나타났으나,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전체 인원은 400 여 명에 그쳐 충분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3.3. 파발제의 정책상 한계

다음은, 파발제 운영에 있어서 정책상의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지역 스스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역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문화진흥법 제 15 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⁵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충분한 재정적 기반 하에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축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평구는 2021~2022 년 위 사업에서 예비도시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특색 부족, 홍보 부족, 주민의 자발적 참여 부족 등 파발제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평구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 15 조

제 15 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 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 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 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 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 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④ 제 3 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⁵ 최정애, 권주영 & 주다영 (2023).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및 시민 요구사항 기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완주문화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6), 49-64.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5 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 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⑦ 제 6 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 5 항을 준용 한다. <신설 2020. 12. 8.>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둘째, 과발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은평문화재단에 관한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은평구의회는 2023 년 감사에서 인사, 채용, 예산회계 문제 등 5 건을 적발하여 은평문화재단의 부실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직원 채용 공고 과정에서 의무기재 사항을 누락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하여 재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인사, 채용, 예산회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적으로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 전문 민간인에게 맡겨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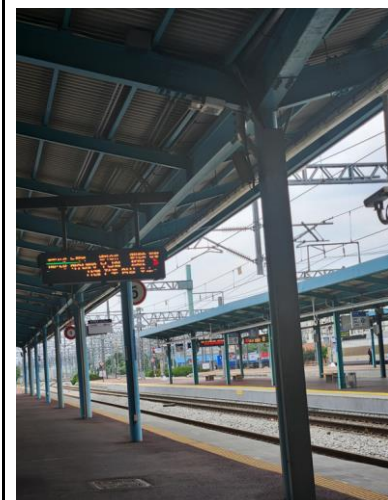
3.4. 외부 지역 사례 - 삼례, 전주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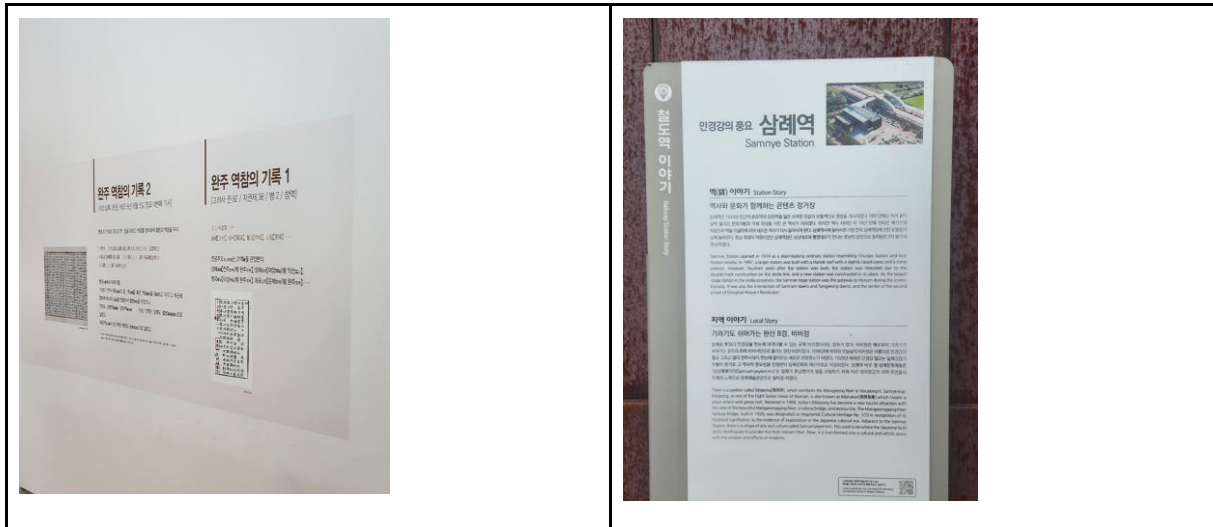
2024 년 7 월 6 일, 본 연구는 삼례와 전주를 답사하여 역참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축제의 홍보 방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삼례와 전주를 선택한 이유는 사전조사에서 삼례역에 대한 전시가 있다는 뉴스 기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비빔밥축제’, ‘전주막걸리축제’ 등 유명한 축제가 있어, 이 도시의 이미지 형성과 홍보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우선 삼례역에 방문하였다. 삼례역은 조선시대 전라도 일대의 역로를 관할하던 삼례도의 중심역으로, 역사적으로는 고려시대 거란군의 침입 당시 현종이 피신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삼례역은 매우 작은 역이었고, 방문 당시 사람도 거의 없었다. 역참 전시를 찾아다녔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역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전시가 종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히 구 삼례역을 리모델링한 '쉬어가삼[례:]'를 찾을 수 있었고, 그곳에는 의병, 역참, 여행자 쉼터로 구성된 전시가 있었다. 삼례 역참은 전국에서 주요한 역참 중 하나로, 삼남대로와 통영대로가 만나는 호남의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진주로 이동하여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였다. 이 곳에서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속놀이 행렬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민속놀이 행렬에 관심을 보였고, 이는 지역문화의 재현이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방법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기록하고, 서울로 돌아와 지역연계 구성원들과 대화를 통해 지역축제의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삼례와 전주를 통한 답사는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역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민속놀이 행렬과 같은 지역축제가 관광 자원으로 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문화와 축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5. 외부 지역 사례 - 시흥 갯골 축제, 제주 JEMI 페스타

은평구 과발제의 홍보 과정 및 진행 방안 전반에서 타 지역 축제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삼례와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축제도 함께 찾아보았다. 방문객 유치 및 주민 참여를 높인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시흥의 갯골 축제와 제주의 JEMI 페스타를 선정하여 참고할 점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먼저 시흥의 갯골 축제는 경기도 유일의 내만갯골에 위치한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9월 말에 펼쳐지는 생태축제이다. 빼어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힘든 일상 속 힐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축제가 진행되는 3일 동안 무려 15만 명의 방문객들이 축제를 즐겼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표 프로그램과 독특한 진행 및 홍보 방식에 있다. 시흥 갯골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갯골 보물찾기가 있고, 어린이 및 가족 단위 고객층을 공략한 다양한 놀이터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프로그램이 있다. 갯골축제학교, 지속가능모니터링단이라는 사전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기획 의도를 실현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대표 프로그램도 축제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이 축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은 다른 아닌 독특한 진행 및 홍보방식이다.

시흥시는 축제의 화제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른바 ‘메타시흥’이라는 메타버스 속 시흥시를 구현한 것인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퓨처브이알랩과 업무 협약을 맺고, 네이버의 ‘제페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정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지역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갯골축제에서는 축제 약 일주일 전부터 ‘갯골축제 맵’을 오픈하여 메타버스 내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갯골 미니게임’은 메타버스에 접속한 뒤, 메타버스 내부에서 구현되어 있는 갯골생물탐험존으로 이동하여 스탬프를 모으고 현장 요원에게 화면을 보여주면 뽑기 기회를 주는 이벤트로, 지역 축제 홍보 및 주민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 많다. 은평구가 인터넷 환경 및 메타버스 이용에 친숙한 지역인만큼 과발제 홍보 및 진행에 있어서 메타버스의 더욱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 같다. 활용 방안을 제안해보자면, 은평구 과거 모습을 메타버스에 구현하여 역참과 파발에 대한 생생한 정보 전달 및 게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살펴볼 다른 지역 축제는 제주의 ‘JEMI 페스타’이다. 제주의 JEMI 페스타는 지역 콘텐츠 축제로 분류되어 콘텐츠를 체험, 홍보, 교류,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기반 축제이다.⁶ 은평구의 파발제와 조금 성격이 다른 축제임에도 이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방문객의 사전 지식 및 콘텐츠 품질의 차별화로 축제의 홍보 및 진행에 있어 만족도 및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지식’은 축제와 관련하여 방문객 개인이 가지고 있고 얻은 직/간접적인 경험 및 숙련도를 말한다. 그리고 ‘사전지식’은 지역 축제에 대한 친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은평구의 파발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참가자의 대부분이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마저도 숫자가 적은 편에 속한다. ‘파발제’ 홍보를 위한 매력적인 콘텐츠는 은평구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타 거주민들에게도 ‘은평구’와 ‘파발제’에 대한 긍정적인 사전 지식을 심어줄 수 있다. 2024 년 개최된 은평누리축제의 SNS 홍보 과정을 보면, 축제의 진행 방식, 일정 및 장소 등은 잘 안내하고 있지만 눈길을 끌 만한 지역의 특별한 홍보용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자체 및 관공서 유튜브 채널이 최근 콘텐츠의 다방면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기존 공식적인 홍보 콘텐츠에서 벗어나 인터넷 ‘밈(meme)’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파발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함께 게시하면서 넓은 나이의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다. 예시를 들자면, 요즘 MZ 세대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챌린지(challenge)’ 문화에 편승하여 ‘파발제 챌린지’를 만들어 노래에 맞게 짧은 안무를 추는 형태로 홍보를 한다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짧은 숏폼 콘텐츠도 좋지만 큰 대로를 행진하는 파발제의 특성 상 시네마틱한 분위기의 롱폼 축제 홍보 영상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유튜브 채널 ‘Imagine Your Korea’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여러 유명 영화의 명장면을 모방한 시네마틱한 분위기로 국내외에서 많은 조명을 받았다. 은평구 파발제 홍보 영상은 조회수 약 3300 만회를 기록한 ‘Feel the Rhythm of Korea - Seosan’ 편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큰 대로를 행진하는 파발대를 중심으로 드론과 짐벌을 활용한 웅장한 연출로 파발제 및 역참 문화까지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홍보 콘텐츠뿐만 아니라 축제 진행에 있어서도 독창적인 콘텐츠는 방문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한다. 제주의 JEMI 페스타에서는 지역의 여러 콘텐츠 제작자들을 중심으로 산업적 교류와 함께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체험 부스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큰 대로를 행진하기만 하는 파발제의 특성 상,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부스 형식보단 시각적으로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파발제만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으로 ‘미디어 아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미디어 아트(media art)는 시간성과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⁶ 박기석(2024), 지역 콘텐츠 방문동기가 방문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JEMI페스타를 중심으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14

하는 디지털 장비를 사용한 미술로, 빛과 소리를 활용한 전시 작품, 프로젝션 맵핑,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아트가 대표적이다. 2024 년에 진행한 은평누리축제에서는 지역 아티스트 4 명(김뽕뽕, 서효정, 고휘, 프로젝트로우키)과 함께 불광천 미디어 브릿지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한 가이드’라는 주제로 다채롭게 꾸몄다. 하지만 불광 미디어 브릿지가 공간적으로 제약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던 은평구만의 특별한 버스 정류장과 연계해서 구과발 일대를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형식으로 조선 시대 역참 테마로 꾸민다면 도시 경관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의 유입도 증가할 것이다. 올해 진행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처럼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관심도 및 참여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3.6. 연서 시장 답사 - 파발제와 지역 상권

파발제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지역 상인의 입장에서 파발제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을 인터뷰하였다. 연서시장 내 세 곳의 상점에 방문하여 파발제에 대한 아래의 질문들을 이어갔다.

1. 은평구에서 진행하는 축제 ‘파발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 은평구에서 파발제 (또는 축제)가 있었을 때, 매출의 증진이 있으셨나요?
3. 파발제의 폐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4. 파발제가 폐지된 이후, 매출이나 방문객 수에 변화가 있었나요?
5. 연서시장 상인으로서 파발제가 다시 열리기를 원하시나요?
6. 연서시장 상인으로서 파발제가 재개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파발제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나요?

인터뷰 결과, 세 명의 상인들은 모두 ‘파발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파발제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않았다. 파발제가 가게 매출의 증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게 모두 전혀 없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행진 위주의 기존 파발제 진행 방식을 꼽았다. 파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매출이나 방문객 수에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고, 파발제와 연서 시장의 매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서시장 상인으로서 파발제가 다시 열린다면 지역 상권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응답했다. 파발제가 재개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기존처럼 똑같이 진행하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아래는 인터뷰를 진행한 상인들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실명 및 상표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A, B, C로 대체했다.

A : 요새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게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크다 보니까 특색 있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백종원 같은 유명인들이 직접 홍보를 나서주면

더 규모도 커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B : 여기 앞에 큰 대로 있잖아요. 여기서 행진 같은 걸 하면 시장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기는 한데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C : 파발제는 원래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장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구경하면서 따라다니는 원래 방식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를 통해 파발제가 연신내 주변 상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축제 홍보에 있어서 지역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유명인과의 협업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4. 연구 결과

5월부터 시작한 연구는 파발과 역참에 대한 조사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발제” 축제에 대한 홍보와 피드백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우리가 한 연구와 개선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파발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중요한 문화양식으로 조선 전체에 3 대로 중 하나인 서발은 특히 유일한 기발이 존재했던 곳이고, 대륙과의 연결 통로로써 지금은 평화를 연계하는 중요 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에 우리는 파발제를 다시 되살려 파발제가 가진 의미와 특성을 살려 은평구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찾은 문제점은 제한적인 축제 콘텐츠를 개선해야 하며, 파발제의 의미와 관련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축제 프로그램에 역참 모형과 파발제 조형물을 살리고, 실제 파발을 보내는 형식을 더해 가족 단위의 방문객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파발제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더하는 방법도 추가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기존의 프로그램과 다른, 은평구 파발제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SNS 를 위한 홍보 방법을 극대화시키고 구파발역 지하 역사 내부를 역참 테마로 구성시켜 은평구의 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제시했다.

또한,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와의 연계성을 강조시켜 문화특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10 대부터 30 대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놀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파발놀이를 제안하였다. 각 학교별 파발놀이를 재현시켜 전체 학교 학생들이 파발제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파발제 자체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은평구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적, 문화적 관심도 함께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밍이나 챌린지의 형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파발제 운영 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포토존, 평화 쇼츠들의 챌린지를 비치하여 이를 인증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은평구 전통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음식을 완성해보는 참여형, 놀이형 행사를 제안하여 축제 참여 인원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5. 결론 및 논의

은평구의 파발제는 그동안 콘텐츠의 한계와 서울 서북쪽 제일 끝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심지어 2024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아예 개최되지 않으면서 은평구의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축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파발제가 다른 축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콘텐츠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외부 지역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연구하였다. 먼저 콘텐츠 다방면화에 있어서는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전시, 파발제 챌린지 제작, 참여형/놀이형 행사의 확대 등을 고안하였고, 홍보 방안 및 방문객 유치로는 시네마틱한 감성의 홍보 영상 게시, 유명인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 등을 생각해보았다. 여기에 더해서 축제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 상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들을 수합하여 은평구 정책 제안 서비스인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안하였고, 앞으로의 파발제에 있어서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 심승구 (2022). 구파발 파발제의 현황과 과제 - 축제의 정체성 탐색,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8, 2p.
- 박성래 (1990), 한국과학기술의 맥(47)-붕수와 파발에서 첨단정보화시대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3-4, 35-36p.
- 유금록. (1995). 행정학 행정학에 있어서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고시계, 40(3), 127-142.
- 오석홍 (1984). 현대행정학의 두 가지 반발적 기류: 공공선택론과 신행정학. 서울대행정논총, 22(2), 139-154.
- 김현태. (2024년 11월 27일). 정부 지원으로 문 열린 7천권 도서관... “독서인구 감소 속 책의 미래 찾겠다”. Open GO Center.
- 최영철. (2024년 7월 12일). 코로나 이후에도 도심 출퇴근 시간 줄어들었다...유연근무제 정착. 매일신문
- 김민화. (2019). 2018-19 축제 만족도 신라문화제 2위, 1위는? 컨슈머인사이트.
- 박기석(2024), 지역 콘텐츠 방문동기가 방문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JEMI페스타를 중심으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14
- 임명수, '시흥시, 지방정부 최초 "메타버스로 떠나는 시흥여행' 오픈', 한국일보, 20211227